

산업인력개발세미나

## 구직효능감 관련 국내 연구 동향

Trends in Domestic Research on Job Search Efficacy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이진규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3. 용어의 정의 .....	3
II. 이론적 배경 .....	4
1. 구직효능감의 의미 .....	4
2. 선행연구 고찰 .....	4
III. 연구방법 .....	7
1. 자료수집 절차와 문헌선정 .....	7
2. 자료 분석 기준 및 방법 .....	7
IV. 연구결과 .....	8
1. 발행 연도별 연구 동향 .....	8
2. 대상별 연구 동향 .....	8
3. 변인별 연구 동향 .....	9
4. 연구 방법별 연구 동향 .....	11
5. 분석 방법별 연구 동향 .....	11
6. 측정 도구별 연구 동향 .....	12

V. 결론 및 제언 .....	13
1. 결론 .....	13
2. 제언 .....	15
참고문헌 .....	17
부록 .....	23

## 표 차 례

<표 IV-1> 연도별 논문 수 .....	8
<표 IV-2> 대상별 논문 수 .....	9
<표 IV-3> 구직효능감 관련 변인별 연구 수 .....	10
<표 IV-4> 변인 유형별 논문 수 .....	11
<표 IV-5> 연구 방법의 빈도와 비율 .....	11
<표 IV-6> 분석 방법별 논문 수 .....	12
<표 IV-7> 구직효능감 측정도구의 활용 빈도 .....	13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4차산업혁명으로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122만 8천명으로 2019년 6월 대비 9만 1천명이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이러한 고용불안 속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능력이 있는 구직자의 비경제활동인구는 54만 1천명 증가하였으며 이중 1년 내 구직활동이 있지만 노동시장의 상황 때문에 구직을 포기하는 구직단념자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4천명 증가하였다(통계청, 2020).

노동시장에 청년, 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의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구직단념자의 증가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20대 청년층 한 명당 대출 증가 폭이 전월 대비 4.08% 급증하였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출 연체액 또한 3.50% 증가하였다(한국경제, 2020). 이와 같이 구직단념자의 구직 실패는 생활고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은 겪는 구직 스트레스는 취업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운주, 2015), 불안과 우울로 발전할 수 있고(정의석, 노안영, 2001), 자살 생각(이성은, 2017)에 대한 증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구직자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한다. 구직과 관련하여 이러한 좌절감과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받거나,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생긴다 하더라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실직 상황에서만 구직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의 변화는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속화 시켰다. 직장인 경력연차별 평균 이직횟수(잡코리아, 2020)를 보면 신입사원

의 이직횟수 1.8회, 10차 직장인의 이직 횟수가 4회로 조사됐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며, 채용시장의 트렌드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고 있어 업무 능력 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에 대한 효능감인 구직효능감은 직업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고 있다. 구직효능감은 구직 활동에서 발현되는 효능감으로 구직 효능감이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불안이 낮고, 구직활동의 적극성이 높아진다.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에 비해 구직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구직효능감에 대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시작됐으며, 구직효능감에 대한 연구동향이나 메타분석 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구직효능감에 대한 연구동향을 조사함으로써 지금까지 구직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구직효능감과 관련된 국내 연구를 종합하여 그 흐름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향 연구는 관련 개념 및 주제에 대한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연구시기와 주제 그리고 방법 등의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이다(김진모, 2004).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구직효능감 관련 연구의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구직을 희망하는 이들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구직효능감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효능감 관련 국내 연구의 발행시기별, 대상별, 변인별, 연구 방법별, 분석 방법별, 측정도구별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구직효능감 관련 국내 연구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3. 용어의 정의

#### 가.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이란, 구직활동에서 나타나는 자기 관련 유능성이라 할 수 있고,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Wanberg, Knafer, Roundo, 1999; 김균, 2009; Zikic, Saks, 2009). Saks et al(2015)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자기효능감이고, 이를 구직행동에 적용시킨것이 구직효능감이라 정의하였다. 도유희(2013)는 구직효능감이란 구직에 대한 자신감 및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구직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구직효능감 개념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되며(Bandura, 1986),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특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구직효능감은 자기효능감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구직상황에서의 효능감, 즉, 구직이라는 과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구직효능감이 구직 상황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과제의 수행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국정화, 2014).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과제 난이도를 선택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같은 맥락에서 구직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인 직업탐색 활동을 하고, 불안의 수준이 낮으며 높은 성취 욕구를 보이며 그로 인해 취업가능성도 높아진다(Saks & Ashforth, 2000).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자기효능감이고, 이를 구직행동에 적용시킨 것이 구직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Kanfer & Hulin, 1985).

### 2. 구직효능감 관련 선행연구 고찰

구직효능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정선아(2004)는 구직효능감이 높은 경우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구직목표를 설정하고 구직활동에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김태은(2006)의 연구에서는 구직에 대한 명확한 경력계획을 가지고 자신에게 구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적



극적인 직업탐색 활동을 하고, 불안의 수준이 낮으며 높은 성취 욕구를 보이며 그로 인해 취업가능성도 높아진다(Saks & Ashforth, 2000). 일의 목적과 의미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심예린, 201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구직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장재윤 외, 2004).

구직효능감은 구직자의 구직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하므로 구직 동기를 높여준다(Wanberg et al., 2001)고 하였다. 구직효능감이 높은 구직자는 자신의 구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구직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구직망의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망의 폭이 넓다는 것은 구직정보를 얻기 위해 접촉한 기관이나 사람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구직망의 폭은 직무탐색의 빈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김균, 2009). Saks, Ashforth(2000)는 청년구직자는 구직활동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구직정보를 접할 수 있고 청년구직자의 구직효능감은 구직활동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지니므로 그들의 입사경로를 결정지을 수 있고 하였다..

Guan et al.(2013)은 중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진로적응성과 구직효능감과의 정의 관계를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 진로적응성의 하위요소인 진로관심은 구직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개인들은 자신의 미래의 진로방향이나 계획을 잘 설정하고 있어서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취업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이는 구직 동기를 강화시켜서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Creed et al. 2008).

배성숙, 장석인(2014)은구직효능감을 구성하는 변인으로 구직정보의 탐색과 구직관련 능력개발, 면접 대비 태도 등의 구직기술은 구직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효변인으로 성공적인 취업의 성과를 나타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과 구직효능감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이 구직효능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김명연·장재윤·조성호·노연희, 2003; 윤형한·이지연·김나라, 2005). van Ryn과 Vinokur(1992)의 연구에서는 직업탐색기술의 습득이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주어 구직의향, 구체적인 구직행동, 직업을 찾는 태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Van Ryn과 Vinokur(1992)는 구직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구직기술훈련, 사회적 지지, 실패에 대한 대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 하였고, 그 결과 참가자들의 구직효능감이 높아졌다. 구직효능감은 구직행동과 직업을 찾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berg(1999) 등의 연구에서도 구직효능감은 구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높은 구직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직무탐색의 빈도가 높고, 불안의 수준이 낮으며, 성취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취업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Saks, Ashforth, 1997).

선행연구들(도유희, 2013;배성숙, 2013)에서도 대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인 구직효능감을 지녀야 구직 성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곽혜정, 2011;배성숙, 2013에서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척도를 수정하거나 타당도 과정 없이 번안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I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절차와 문헌선정

이 연구에서는 구직효능감에 관한 국내 연구물을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연구의 분석 대상을 수집하고 문헌을 선정하였다.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iss.kr)에서 KCI 등재지를 기준으로 2003년~2021년의 연구물을 총 80개를 검색하였고 최종 39개 문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문헌 선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둘째, 중복된 문헌을 제외하여 79개 문헌을 선정하였다.

셋째, 제목, 초록, 키워드에 ‘구직효능감’을 포함하지 않은 문헌 제외하여 74개 문헌을 선정하였다.

넷째, 이 중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헌, 구직효능감이 하위요인으로 포함된 문헌을 제외하여 39개 문헌을 선정 하였다.

#### 2. 자료 분석 기준 및 방법

선정된 문헌을 코딩하기 위하여 진로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문헌(김수임, 김창대, 2009; 선혜연, 김계현, 2007)을 기반으로 최근의 연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선행연구의 분석 틀을 수정·보완한 연구동향 분석을 문헌(이영광, 양인준, 이승엽, 2019)을 기반으로 ① 연도, ② 연구대상, ③ 연구변인, ④ 연구방법, ⑤ 분석방법, ⑥ 측정도구를 분석의 틀로 구성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발행 연도별 연구 동향

다음의 <표 IV-1>과 같이, 2005년부터 2021년 11월까지의 구직효능감 관련 연구를 볼 때 2017년부터 연구 문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7년 이후의 연구가 전체 연구의 약 48.7%의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구직효능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1> 연도별 논문 수

단위: 개, %

연도	논문수	비율	연도	논문수	비율
2005	2	5.1	2014	4	10.3
2006	1	2.6	2015	1	2.6
2007	2	5.1	2016	2	5.1
2009	2	5.1	2017	7	17.9
2011	1	2.6	2018	6	15.4
2012	3	7.7	2019	5	12.8
2013	2	5.1	2020	1	2.6

### 2. 대상별 연구 동향

연구대상별 논문 수를 확인한 결과, <표 IV-2>와 같이 대학·전문대학생(6.15%), 실직자(15.4%), 경력단절여성(5.1%), 여성결혼이민자(5.1%)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타에는 장애인과 취업커뮤니티 이용자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이 제기 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연구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 대상별 논문 수

단위: 개, %

대상	실직자	경력 단절 여성	여성 결혼 이민자	대학· 전문대 학생	청년	청소년	장애인	기타
논문 수	6	2	2	24	1	1	1	2
비율	15.4	5.1	5.1	61.5	2.6	2.6	2.6	5.1

### 3. 변인별 연구 동향

#### 가. 구직효능감 관련 변인별 연구 수

구직효능감 관련하여 다양한 변인이 연구되어왔는데, <표 IV-3>과 같이 이중 높은 비율을 보인 상위 5개 변인은 진로 및 취업 준비행동 관련 변인(13.4%), 정신건강 관련 변인(13.4%), 자존중감 관련 변인(10.4%), 직업기초능력 관련 변인(9.0%), 취업불안 관련 변인(9.0)%이고, 기타 변인이 21개로 68.7%를 차지한다. 이 결과로 볼 때 구직효능감 관련 변인은 산발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특정 변인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구직효능감 관련 변인별 연구 수

단위: 개, %

변인	논문 수	비율
진로 및 취업 준비행동관련 변인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 취업준비도,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비용, 취업준비비용 지출의도)	9	13.4
정신건강 관련 변인 (정신건강, 스트레스대처력, 회복탄력성, 자아탄력성, 마인드셋, 감사성향, 취업정신건강)	9	13.4
자아존중감	7	10.4
직업기초능력 관련 변인 (직업기초역량, 직무준비역량,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자기인식 정도, 직무향상)	6	9.0
취업불안관련 변인 (취업불안, 취업스트레스, 우울, 불안)	6	9.0
진로성숙관련 변인 (진로결정수준, 자기주도성, 진로정체감, 진로태도성숙도)	5	7.5
전공만족관련 변인 (전공선택, 전공교과만족도)	4	6.0
기타	21	68.7

#### 나. 구직효능감 변인 유형(종속·독립·매개)별 연구 수

구직효능감을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IV-4>와 같다. 분석 결과, 구직효능감의 약 51.7%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었고, 15.5%는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직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활용한 연구는 총 19개 연구로써 32.8%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종합하면, 구직효능감은 주로 종속변인과 매개변인으로 활용되고, 일부 논문에서 독립변인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 변인 유형별 논문 수

단위: 개, %

구직효능감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변인
논문 수	30	9	19
비율	51.7	15.5	32.8

#### 4. 연구 방법별 연구 동향

김석우, 최태진(2007)이 제시한 양적 연구 방법(기술연구, 상관연구, 인과-비교연구, 실험연구)을 기반(김수임, 김창대, 2009; 선혜연, 김계현, 2007)으로 선정 문헌의 연구 방법을 분석하면 다음의 〈표IV-5〉와 같다. 선정된 문헌의 약 63.2%는 인과-비교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주고 받는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 하는 것을 넘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실험연구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구직효능감의 변화를 비교한 연구이다.

〈표 IV-5〉 연구 방법의 빈도와 비율

단위: 개, %

연구방법	기술연구	상관연구	인과-비교 연구	실험연구	척도개발	계
빈도	3	7	36	10	1	57
비율	5.3	12.3	64.2	17.5	1.8	100

주) 기술연구란 어떤 현상이나 과정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임(김석우, 최태진, 2007).

#### 5. 분석 방법별 연구 동향

구직효능감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을 종합하면 〈표 IV-6〉과 같다. 차이검증의 경우 t검증(15.7%)과 분산분석(7.4%)의 방법이 많

이 활용되었다. 관계검증의 경우, 회귀분석(27.8%), 상관분석(25.9%), 요인분석(15.7%), 구조방정식(7.4%) 순으로 활용되었다. 관계검증 분석 방법의 비율이 약 76.9%를 차지함을 볼 때, 앞서 연구 방법의 결과와 같이, 구직효능감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과-비교의 목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 유용한 분석 방법이 활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6〉 분석 방법별 빈도와 비율

단위: 개, %

분석방법	차이검증		관계검증				계
	t검증	분산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빈도	17	8	17	28	30	8	108
비율	15.7	7.4	15.7	25.9	27.8	7.4	100

## 6. 측정 도구별 연구 동향

다음의 <IV-7>과 같이, 구직효능감 측정하기 위하여 도구가 다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JOBS II Survey(Vinokur & Drie,1991)의 문항이 측정을 위한 자료로 11회 활용 되었으며, 청년패널2007(YP2007)의 문항이 2회 활용되었다. 김병숙(2009)의 측정도구는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 4가지의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5회 활용 되었다. 구직효능감을 측정하는 명확한 도구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대부분 관련된 내용의 문항을 일부 활용하여 연구에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통해 구직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와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7〉 구직효능감 측정도구의 활용 빈도

단위: 개

변인	연구자	하위요인	빈도
구직 효능감	JOBS II Survey (Vinokur & Drie, 1991)	-	11
	김병숙(2009)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	5
	청년패널2007	-	2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표된 국내학술논문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탐색은 구직효능감 관련 최신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의 내용과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방향과 정보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 영역은 발행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변인, 연구 방법, 분석 방법, 측정 도구 연구 6개 영역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한 후 그에 따른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 연도에 따른 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학술논문은 2005년부터 구직효능감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4년부터 연구논문 수가 증가한다. 특히 전체 연구의 약 48.7%가 2017년 이후에 연구된 것으로 구직효능감 관련 연구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직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나 진로자기효능감과 같은 효능감 관련 연구에 비해 연구가 시작된 기간이 짧고, 연구동향이나 메타분석 등 연구의 흐름이나 변인 간의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연구 대상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학·전문대학생의 연구가 61.5%로

가장 많았고, 실직자(15.4%), 경력단절여성(5.1%), 여성결혼이민자(5.1%)의 순으로 많았다. 대학·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학생들의 표집이 용이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직자,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직효능감은 취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취업이라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필요로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변인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준비행동 관련 변인(13.4%), 정신건강 관련 변인(13.4%), 자아존중감 관련 변인(10.4%), 직업기초능력 관련 변인(10.4%) 순으로 많이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직효능감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된 변인, 실질적인 취업 준비능력과 관련된 변인이 많이 연구되었다. 그러나 68%를 차지하는 21개의 변인은 3회 이하로 연에서 다뤄진 변인들로 구직효능감 관련 변인이 지속적으로 깊게 연구되는 사례가 많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구직효능감의 변인 유형별 연구를 보면 종속변인(51.7%), 매개변인(32.8%), 독립변인(9%) 순으로 연구되었다. 사회인지이론에서 효능감은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인인데 구직효능감에서는 종속변인으로서 가장 많이 연구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구직효능감은 원하는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결과 변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연구 방법별 연구동향을 보면 인과-비교 연구가 64.2%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험연구도 17.5%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과-비교 연구가 많은 것은 구직효능감이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인과-비교연구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 연구가 많은 것은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교육 전후를 비교하여 구직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분석 방법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회귀분석(27.8%), 상관분석

(25.9%), 요인분석(15.7%), t-검증(15.7%)의 순으로 분석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방법에서 인과-비교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를 연구하기 위한 관계검증 방법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측정 도구별 연구동향은 보면 구직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Jobs II Survey(Vinokur & Drie, 1991) 문항을 활용해 검사를 하고 있었으나 하위요인이 없이 단일 요인으로 검사가 되고 있었다. 청년패널 2007의 문항을 이용한 연구도 있었지만 이 역시 단일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김병숙(2009)의 연구에서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을 하위요인으로 한 검사도구가 개발 되었지만 그 사용 빈도는 5회로 많지 않았다.

## 2. 제언

결론 및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효능감과 관련 변인 간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한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구직효능감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인과-비교 연구인 만큼 변인 간의 효과 크기를 볼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심화된 인과-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구직효능감의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직효능감 연구의 대상은 대학·전문대학생, 실직자, 경력단절여성,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되어 있다. 구직활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삶에서 다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인만큼 연구 대상의 폭을 넓혀 구직효능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구직효능감의 연구 변인별 기존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구직효능감의 연구 변인은 그 종류가 많고 3회 이상 연구되지 않은 변인이 68.7%가 될 만큼 후속 연구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축적된다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넷째, 구직효능감 측정 도구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구직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측정 도구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측정 도구가 개발된다면 연구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현장에서도 의미 있게 사용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기정, 이무영, 임재욱. (2014).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자원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3), 387-404.
- 강헌주, 정지수, 이주형. (2016). 전문대생의 진로적응성이 구직효능감과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광관련학과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71, 17-42.
- 국정화. (2014). 직장인의 취업전 진로효능감 및 구직효능감과 취업 후 직무만족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혜정. (2011). 실업자의 직업정보인지 수준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 매개변인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미윤. (2018). 웨딩관련학과 전문교육과정 만족도가 구직효능감 및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미용학회지**, 24(2), 271-279.
- 김광용. (2017). 체면민감성이 대학생의 전공선택과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광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151-162.
- 김대진, 천성문, 이영순. (2009). 자아존중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치료연구**, 1(2), 15-30.
- 김명언, 노연희 (1998).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17(1), 115-137
- 김미경, 김성희. (2017).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패션 비즈니스**, 21(5), 78-90.
- 김미경. (2018). 여대생의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 **패션 비즈니스**, 22(4), 160-177.

- 김미경. (2019).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양교육연구**, 13(6), 477-496.
- 김민희, 이제경. (2017). 전문대 재학생이 지각한 직업기초능력과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0(3), 111-128.
- 김병숙, 김보인, 이보비. (2009).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 지출의지 및 정도와 구직효능감 분석. **진로교육연구**, 22(4), 39-61.
- 김병숙, 송성화, 최정은. (2014). 장애인의 구직효능감을 위한 구직역량프로그램 효과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6), 3587-3598.
- 김상은, 안세지, 김희진. (2017). 대학생용 구직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치료연구**, 9(2), 384-403.
- 김서현, 정은숙, 명소연, 정익중. (2013). 청소년의 직업경험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3), 217-246.
- 김석우, 최태진. (2007). **교육연구방법론**. 학지사.
- 김성덕. (2017). 체육계열 대학생의 경력개발지원인식과 구직강도의 관계에서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527-536.
- 김수임, 김창대. (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상담학연구**, 55(3), 1573-1591.
- 김정아. (2017).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정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비서·사무경영연구**, 26(1), 57-80.
- 김종환, 김석규, 손진웅, 유재구. (2018). 체육계열 전공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고용시장 진출 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3), 161-173.

- 김중희, 주용국. (2014).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HRD연구**, 16(3), 185-223.
- 김진모. (2004). 인적자원개발 연구 동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4), 115-138.
- 김찬선, 김경식. (2019). 경호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원과 구직효능감 및 진로 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융합과학회지**, 8(2), 173-187.
- 김춘근, 안정석, 이훈영. (2017). 취업 커뮤니티 특성이 취업 커뮤니티 몰입, 구직효능감,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7(1), 49-74.
- 김태은, 탁진국. (2007). 재취업 질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0(1), 57-80.
- 김한우. (1999). 실직자의 심리적 경험: 주요사건의 효과와 대처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동, 한용석. (2012).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중요성. **노동정책연구**, 12(4), 1-24.
- 노연희, 김명언. (2011). 불완전고용의 선행요인 및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1), 19-49.
- 도유희. (2013). 자활사업 참여자 구직효능감 결정의 영향요인: 전북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주. (2015). 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취업 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2020). 청년구직자의 적응유연성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성숙, 장석인. (2014). 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구직효능감 및 구직성가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1(5), 115-136.
- 선혜연, 김계현. (2007).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 -1997년~2006년. **상담학연구**, 8(4), 1467-1483.
- 이성은 (2017). **청년들의 취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광, 양인준, 이승엽.(2019).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101-125.
- 이현숙. (2018).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일희망과 구직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20(3), 101-117.
- 이혜경, 김남송. (2012).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위생학회지**, 12(2), 327-334.
- 임주희, 하정. (2019).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197-214.
- 장서훈, 이용진. (2019). 재한 중국유학생의 자기성장 유학동기와 유학생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商業教育研究**, 33(5), 1-25.
- 전찬열.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20(1), 1-14.
- 정의석, 노안영. (2001).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아존중감 및 신체건강과의 관계 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3, 85-101.
- 정선아. (2004).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과 이력서작성수준 간의 관계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효경, 최주영. (2018).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 **대한치과기공학회지**, 40(4), 261-271.
- 정희정, 탁진국. (2018). 구직관련 개인자원증진 커리어 그룹코칭 효과성 검증: 이공계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1(3), 611-641.
- 조은경, 김중운. (2014). 대학생의 감사성향이 구직효능감 및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4), 95-112.
- 주석진. (2020). 플립러닝을 활용한 대학생 전공 진로지도 교과목의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33(1), 1-20.
- 차민정, 박소영, 송현주, 노연희. (2012). 집합주의 문화가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 지각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27-51.
- 최경화, 탁진국. (2017). 경력단절여성 대상 강점 중심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자존감, 구직효능감,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코칭**, 1(1), 73-97.
- 탁진국, 유태용, 한태영, 안상수, 한영석, 신강현, 윤하나, 남궁혜림, 정지현. (2006). 자발적 실직자와 비자발적 실직자간의 구직활동 및 정신건강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37-46.
- 한규철, 이현심. (2019).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취업스트레스와 자이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967-995.
- 한태영,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유태용, 이세란. (2005). 장년층 구직자의 구직효능감에 대한 귀인과 강인성의 영향: 정신건강과 재취업 제한요건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3), 611-637.

함필주, 강기정.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및 취업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0(3), 525-541.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y Review*, 84(2), 191-215.

Kanfer, R., & Hulin, C. L. (1985).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cessful  
job searches following layoff. *Personnel Psychology*, 38, 835-847.

Saks, A. M. and Ashforth, B. E.(1997).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Information Sources, Applicant  
Perceptions of Fit and Work outcomes, *Personnel Psychology*,  
50(5), 395-425.

Vinokur, A. D., Van Ryn, M., Gramlich, E. M. and Drie, R. H(1991).  
Long-term follow-up and benefit-cost analysis of the JOBS  
program: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the unemployed,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213-219

Wanberg, C. R., Kanfer, R. and Rotundo, M.(1999). Unemployed  
Individuals : Motives, Job Search Competencies, and Job Search  
Constraints as Predictors of Job Seeking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6), 897-910.

통계청. (2020).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경제(2020). "취업포기" 구직 단념자 58만명 역대 최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163763>

[부록] 분석 대상 논문 목록

순번	제목	저자	발행연도
1	장년층 구직자의 구직효능감에 대한 귀인과 강인성의 영향: 정신건강과 재취업 제한요건의 매개효과	탁진국, 김미희, 유태용, 한태영, 한영석	2005
2	장년층 구직자의 구직효능감에 대한 귀인과 강인성의 영향	한태영, 안상수, 신강현, 한영석, 탁진국, 유태용, 이세란	2005
3	자발적 실직자와 비자발적 실직자간의 구직활동 및 정신건강에서의 차이	탁진국, 유태용, 한태영, 안상수, 한영석, 신강현, 윤하나, 남궁혜림, 정지현	2006
4	재취업질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김태은, 탁진국	2007
5	재취업 질의 선행변인과 결과변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김태은, 탁진국	2007
6	자아존중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전문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대진, 천성문, 이영순	2009
7	대학생의 취업준비비용 지출의지 및 정도와 구직효능감 분석	김병숙, 김보인, 이보비	2009
8	불완전고용의 선행요인 및 불완전고용이 조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노영나희, 김명언	2011
9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중요성	김현동, 한용석	2012
10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혜경, 김남송	2012

순번	제목	저자	발행연도
11	집합주의 문화가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 지각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차민정, 박소영, 송현주, 노연희	2012
12	청소년의 직업경험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서현, 정은숙, 명소연, 정의중	2013
13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전찬열	2013
14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자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강기정, 이무영, 임재옥	2014
15	장애인의 구직효능감을 위한 구직역량프로그램 효과 분석	김병숙, 송성화, 최정은	2014
16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개발과 효과 검증	김종희, 주용국	2014
17	대학생의 감사성향이 구직효능감 및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조은경, 김종운	2014
18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및 취업준비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함필주, 강기정	2015
19	전문대생의 진로적응성이 구직효능감과 취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 : 관광관련학과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강헌주, 정지수, 이주형	2016
20	체면민감성이 대학생의 전공선택과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관광전공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김광용	2017
21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미경, 김성희	2017
22	전문대 재학생이 지각한 직업기초능력과 진로결정수준, 구직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김민희, 이제경	2017
23	대학생용 구직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김상은, 안세지, 김희진	2017
24	체육계열 대학생의 경력개발지원인식과 구직강도의 관계에서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	김성덕	2017

순번	제목	저자	발행연도
25	전문대학 비서학 전공생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자기인식정도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정아	2017
26	취업 커뮤니티 특성이 취업 커뮤니티 몰입, 구직효능감,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춘근, 안정석, 이훈영	2017
27	경력단절여성 대상 강점 중심 그룹코칭 프로그램이 자존감, 구직효능감,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최경화, 탁진국	2017
28	웨딩관련학과 전문교육과정 만족도가 구직효능감 및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	권미윤	2018
29	여대생의 퍼스널 이미지 만족도와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외모관리행동의 매개효과	김미경	2018
30	체육계열 전공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고용시장 진출 준비에 관한 연구	김종환, 김석규, 손진웅, 유재구	2018
31	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이 일희망과 구직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현숙	2018
32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	정효경, 최주영	2018
33	구직관련 개인자원증진 커리어 그룹코칭 효과성 검증	정희정, 탁진국	2018
34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역량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미경	2019
35	경호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원과 구직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김찬선, 김경식	2019
3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구직효능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조절효과	임주희, 하정	2019
37	재한 중국유학생의 자기성장 유학동기와 유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서흔, 이용진	2019
38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구직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취업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규철, 이현심	2019
39	플립러닝을 활용한 대학생 전공 진로지도 교과목의 효과분석	주석진	2020